

5월 24일(월) / 시 119

▶ **내용요약** :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장이다. 또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되는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서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과 그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먼저 시편기자는 여호와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반복적으로 소망했다. 왜냐하면 주의 증거가 그의 즐거움이고 충고자였으며, 주의 말씀이 그의 발의 등이자 길의 빛이기 때문이다. 시편기자에 따르면 말씀만이 인생의 소망이며,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교훈한 것이다.

▶ **질문** : 아래의 빈칸을 채우시오.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 **생각하기** :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자.

5월 27일(목) / 잠 4-6

▶ **내용요약** : 잠언4장은 영혼 뿐 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교훈한다. 또한 지혜와 명철은 나의 발을 악에서 떠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든든히 해주는 것임도 기억해야 한다. 5장은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스올로 가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 교훈을 버리지 말고 근신함으로써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6장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하는 실제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거나 보증하지 말 것, 게으르지 말 것, 불량하고 악하지 말 것 등이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말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고 명령은 등불이며 법은 빛이라고 비유했다.

▶ **질문** : 생명의 근원이 이것이므로 더욱 이것을 지키라고 교훈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4장)

▶ **생각하기** : 하나님과의 관계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자.

5월 30일(일) / 잠 13-15

▶ **내용요약** : 잠언 13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다(14절). 그러므로 지혜자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는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 14장은 지혜가 집을 세운다고 가르치고 있다. 반대로 어리석음은 집을 무너뜨린다. 또한 여호와를 경멸하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모습임을 계속해서 강조했다(1절). 그러면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며, 생명의 샘이 되어 사망의

5월 25일(화) / 시 120-123

▶ **내용요약** :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다. 시편기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며 간절히 호소했다. 그는 화평을 원하지 않는 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힘든 싸움을 했지만, 기도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21편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즐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시편기자는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교훈했다. 122편은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을 구하도록 권면하는 노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든 지파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화평을 구하며 축복했다. 123편은 탄식시로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고하면서 간구하는 노래이다. 시편기자는 심한 열시로 인해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 **질문** : 아래의 빈칸을 채우시오. (121편)
“나의 ()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생각하기** :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5월 28일(금) / 잠 7-9

▶ **내용요약** : 잠언 7장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음녀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계명을 행하고, 그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내 손가락에 매고 마음 판에 새겨야 한다. 8장에서는 또 다시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그가 부르고 있다고 묘사했다. 동시에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고 언급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찬양했다. 더 나아가 태초부터 이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에, 만약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잘못임을 명확하게 했다. 9장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외치는 지혜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와 달리 어리석은 자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 **질문** : 아래의 빈칸을 채우시오. (9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이니라”

▶ **생각하기** :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또한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지혜를 거부하는 이들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할 것이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로마서 1:20을 읽으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26-27절). 15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혜자의 대답은 부드럽다(1절). 또한 마음이 즐거운 사람의 삶은 모든 날이 잔치 날과 같고(15절),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24절). 그리고 겸손함으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어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그러나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 이처럼 잠언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길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길을 사모하게 하고 있다.

5월 26일(수) / 잠 1-3

▶ **내용요약** : 잠언 1장은 잠언 전체의 서론을 담고 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위해서, 특히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또한 지혜를 의인화하여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말함으로써 그 무엇보다 지혜를 추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2장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언급한다. 지혜는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3장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 **질문** : 아래의 빈칸을 채우시오. (1장 7절)
“여호와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 **생각하기** :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과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서인이 되자. 우리의 예배와 삶의 태도가 그분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5월 29일(토) / 잠 10-12

▶ **내용요약** : 잠언 10장 또한 솔로몬의 잠언이다. 1-9장은 권면하는 성격의 글이라면 10장부터는 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아들,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와 손이 부지런한 자, 의인과 악인과 같이 대조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결과를 보여준다. 11장은 그릇된 삶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보여준다. 또한 그 결과는 자기를 망하게 하고 무익하며 해롭게 함을 가르치고 있다. 반대로 지혜자의 삶은 자기를 구원하고 또한 삶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12장은 결론적으로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에는 죽음이 있음을 강조하며 의의 길을 행하도록 교훈하고 있다.

▶ **질문** : 아래의 빈칸을 채우시오. (12장 28절)
“공의로운 길에 ()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 **생각하기** :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릇된 길을 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선택 또한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질문** : 아래의 빈칸을 채우시오. (15장 3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 **생각하기** : 사실 우리는 ‘겸손’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기 때문이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빌립보서 2:1-11을 읽으라)